

文字史에서 본 東洋 三國 文字의 특성*

이익섭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1

문자 발달의 단계를 보면 한결같이 〈單語文字→音節文字→字母文字〉의 단계를 밟아 왔음을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집트의 單語文字(神聖文字)가 페니키아의 音節文字를 거쳐 그리스의 字母文字로 발전해 온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일은 이집트의 單語文字도, 페니키아의 音節文字도 현재 쓰이지 않는 文字라는 점이다. 字母文字라는 편리한 문자가 탄생되면서 그 쓰임을 잃고 자연히 버림을 받게 된 것이다.

* 이 글은 1997년 10월 15일 中國 北京 語言文字應用研究所에서 韓中 學術 교류 특별초청 강연회에서 발표한 내용임. 현지 청중의 편의를 위해 漢字가 의도적으로 많이 표출되었던 것을 얼마간 줄인 상태임.

이러한 서양 문자사와 비교하여 우리 동양 삼국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점이 있다. 물론 이쪽에서도 漢字와 같은 單語文字가 먼저 생기고, 그 漢字를 변모시켜 일본의 가나[假名]와 같은 音節文字를 만들어낸 과정은 문자 생성의 일반적인 유형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한자는 구시대 문자라 하여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單語文字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천년 동안 그 위세를 잃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가나도 전형적 音節文字의 모습 그대로 현재까지도 당당히 쓰이고 있다. 각 단계의 문자 체계가 字母文字에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 동양에서만 볼 수 있는 특기할 만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한글도 매우 특이한 존재다. 한글이 字母文字이고 그것이 한자나 가나보다 후대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는 문자 발달의 정상적인 경로를 밟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글은 어떤 기존의 문자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전혀 독창적인, 세계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원리에 의해 창제되었다.

한국에서도 한때 吏讀라고 하여 가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한자의 일부를 따서 만든 일종의 音節文字를 만들어 썼다. 'ㄱ(厓), ㆁ(隱), ㄴ(尼), ㄷ(多), ㄹ(古), ㅁ(爲)'가 그 대표적인 예다. 가령 그리스인들이 했던 바와 같은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ㄴ'(ni)를 [n]을 대표하는 子音字로, 'ㄷ'(ta)를 [t]를 대표하는 子音字로 만들고, 母音字를 별도로 만드는 방식 따위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吏讀를 그리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아예 漢文

ㄴ → ㄷ → ㅌ (ㄷ → ㄹ)

ㅁ → ㅂ → ㅃ

ㅅ → ㅆ → ㅈ

ㅇ → ㆁ → ㆏ (ㅇ → ㅎ)

이상에서 보면 한글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발음기관을 글자의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字母를 뽀뽀이 별개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나머지는 그 기본자로부터 획을 더하여 파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字母(28字)를 二元的인 조직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 두 가지 특징이 모두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글 고유의 특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글은 또다른 특징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각 字母를 일렬로 풀어쓰지 않고 音節 단위로 조합하여 쓰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 이 글에서 보듯이 일반 字母文字라면 ‘ㅎ ㅏ ㄴ ㄱ ㅡ ㄹ’이라고 풀어 써야 할 것을 ‘한글’로 묶어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훈민정음」에 있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서인데 이 또한 다른 문자에 없는 한글 고유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 (4)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 中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 · 一 ㅏ ㅑ ㅓ ㅕ 是也 縱者在初聲之右 ㅓ ㅗ ㅛ ㅜ ㅠ 是也 … 終聲在初中之下

이상에서 보면 결국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는 모두 문자발달사에서 볼

때 매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각 3대 문자의 하나씩을 가지고 세계의 文字學 분야에 주요한 資産을 제공하고 있다. 본인은 이 점을 늘 기분좋은 일로 여기고 있다. 참고로 Sampson(1985)의 목차를(6장에서 10장까지) 소개한다. 여기에서 보면 총 10장 중 한국, 중국, 일본의 문자가 각각 한 장씩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양 삼국의 문자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것이다.

- 6 The Graeco-Roman alphabet (그리스 로마 字母)
- 7 A featural system : Korean Hangul (資質文字 체계 : 한국의 한글)
- 8 A logographic system : Chinese Writing (單語文字 체계 : 한자)
- 9 A Mixed System : Japanese Writing (혼합체계 : 일본 문자)
- 10 English Spelling (영어 철자)

2

여기서 본인은 이상의 현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려 한다. 漢字나 일본의 가나의 생존 현상이 잘못된 현상일까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즉 우리 동양은 버려야 할 유산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비진취적인 사회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 보고 싶은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흔히 漢字는 불편한,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시대에 뒤떨어진 문자로 평가되어 왔다. 글자 수가 너무 많아 字母文字에 비해 배우기도 어렵거니와 기계화가 쉽지 않은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한때 한자를 버리고 漢語拼音方案과 같은 로마자로 대체하려 했던 것도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제2차대전 이후 한자를 일본 패망의 원인으로 몰아 한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런데 근래에 오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한자의 장점을 바로 인식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單語文字가 앞 시대의 것이고 字母文字가 후대의 것이라 하여 單語文字가 덜 발달한, 더 불완전한 문자라는 생각은 사물을 어느 한 면만 보는 단순 논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자나 아라비아 숫자와 같은 表意文字가 독서에 表音文字보다 능률적이라는 점을 하나씩 밝혀내 주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중대한 思考의 전환이 있었다. 종래에는 글자는 우리를 소리로 연결시켜 주는 길로써만 그 가치를 부여하려 하였다. 글을 보고 의미를 아는 것은 그 글을 통해 음성언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발음에서 떨어진 綴字는 멀어지면 떨어진 만큼 나쁜 철자로 간주되었고, 영어 철자처럼 발음에서 떨어진 철자를 表音에 충실한 철자로 바꾸려는 운동이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그러던 것이 근래에 와서 음성언어로 환원되지 않고도 문자에서 직접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는 연구가 쌓이면서 철자가 반드시 表音에 충실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表音에는 불충실하더라도 시각적으로 의미를 더 잘 전달해 주는 철자가 더 좋은 철자인데 이 기준에서 보면 表意文字가 더 좋은 문자이며, 表音文字를 가지고도 表意文字에서처럼 한 형태소나 한 단어를 시각적으로 고정시키면 그만큼 더 좋은 철자, 더 좋은 표

기법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 철자와 같은, 발음에서 떨어진 철자가 오히려 더 理想的인 철자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새 사고는 漢字의 立地를 그만큼 넓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가능케 해 준 것이 바로 한자였다고 해야 옳을지 모른다. 表意性的 장점을 증명하는 자료는 무엇보다도 바로 한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한자는 버려야 할 유산이 아니고 새삼 그 가치를 바로 평가하고, 좀더 알뜰히 가꾸어 가야 할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일련의 연구는 漢字와 같은 表意文字를 관장하는 뇌와 表音文字를 관장하는 뇌는 서로 다른 뇌일 것이라는 가설을 주창한다. 특히 일본에서 뇌를 다친 환자들로부터 일본 글자는 잊어버렸으면서 한자는 잊지 않은 많은 사례가 보고됨으로써 이 가설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처럼 表音文字와 表意文字를 혼용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상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한자는 그야말로 반드시 이 세상에 남아있어 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은 漢字拼音方案에 의해 한자가 중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더욱이 중국어는 單音節語여서 한자로 훌륭히 표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심한 方言差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에도 한자 이상의 문자가 없을 것이다. 한자는 중국어에 가장 잘 맞는 옷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일본의 가나 또한 음절 구조가 단순한 일본어에 더없이 적합한 문자라고 생각된다. 동양에서 앞 단계의 문자를 그대로 유지해 오는 것은 따라서 결코 우리가

舊習에 얽매어 있는 비진취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3

이러한 관점에서 漢字簡化 作業에 대해 본인의 所見을 간략히 펴려하고자 한다.

좋은 문자는 쓰기에도 좋고 읽기에도 좋은 문자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思考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좀 무책임한 말일 수 있다. 문자는 무엇보다 읽기 좋은, 즉 독서에 더 능률적인 문자여야 한다. 한 사람이 써 놓으면 수천 수만 명이 읽고, 또 1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읽기 때문이다. 문자 내지 표기법이 쓰기면해보다 읽기면에, 즉 독서면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사고인데도 이에 대한 인식은 의외로 잘 안 되어 있다.

簡化字(簡體字)는 繁體字에 비해 독서에 더 능률적일까? 본인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령 '鬱'字는 너무 복잡하여 본인은 아직도 외워 쓰지 못하는 정도이지만 그것을 읽는 데는 '郁'字보다 하나도 더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簡化字 작업은, 문자개혁론자들이 흔히 그러려고 하듯이 읽기쪽보다 쓰기쪽에 초점을 둔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획수가 준 것이 쓰는 쪽으로는 便益을 주지만 辨別力은 오히려 떨어뜨리기가 쉬울 것이다. 영어의 'knight, wright' 등에는 소리가 전혀 안 나는 'k, w, g, h' 등이 섞여 있지만 획수를 줄이겠다고 이 글자를 빼 버리면 이 단어의 시각적 변별력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과 같다. 더욱이 同音字를 두 다른 단어에 쓰는 것은 분

명히 독서 능률을 떨어뜨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좋은 문자란 美的으로도 좋아야 한다는 것도 흔히 지적된다. 簡化字가 繁體字보다 美的으로 더 향상되었는지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한자를 약자로 쓰면 어른들한테 야단을 맞았다. 편의를 좇아, 갖추어야 할 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였을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美的 기준도 작용하였을지 모른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言’의 簡化字에 저항을 느낀다. 획을 별로 줄이지도 못하면서 楷書(또는 활자체) 본연의 모습을 깨뜨렸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灬’를 ‘一’로 바꾼 것도 글자의 모양을 흉하게 보이게 한다. 전체적으로 簡化字는 수천년 동안 중국인의 뛰어난 지혜로 가꾸어 온 한자의 품격과 美를 얼마간 손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인상이다.

한자를 이야기할 때 書藝와의 관계를 빠뜨릴 수 없다. 세계 어떤 문자도 문자를 예술로 승화시킨 일이 없다. 그런데 유독 한자는 書藝(書法)라고 하는 독특한 영역을 발전시켜 왔다. 이것은 한자가 美와 그만큼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문자개혁에서 문자의 美가 고려의 대상이라고 할 때 중국은 어느 다른 나라보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주지하다시피 문자는 말과 달리 時空의 제약을 초월하는 장점을 가진다. 문자는 먼 곳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 무엇보다 후세에 전달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記錄이란 문자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졌다. 우리는 10년 전의 기록, 100년 전, 1,000년 전의 기록을 문자에 의해 보게 된다. 이럴 때 한 나라의 문자나 표기법이 자주 바뀌는 것은 문자의 기능을 그만큼 후퇴시키는 결

과를 낳는다고 생각된다. 簡化字 작업이 중국에서 어떤 불편을 일으키고 있는지 본인은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역사를 한결같이 동일한 문자로 기록하여 온 중국이라면 지금도 傳來의 문자를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이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버리기 어렵다.

물론 본인이 지적한 이러한 사항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중국에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문자개혁이라는 어렵디 어려운 정책을 결행하게 하였을 것이다. 본인도 그것을 전혀 모르는 바 아니나 이 자리에서는 다만 文字學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端見을 피력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른바 漢字文化圈의 각 나라가 되도록 공통되는 한자를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은연중 깔려 있었을지 모른다. 동양 삼국은 확실히 한자를 매개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때 한자는 수천년을 그래 왔듯이 옛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때 그 眞價가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한자를 매개로 맺어져 온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돈독한 관계가 앞으로 더욱 잘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본인 이야기를 마칠까 한다.

참 고 문 헌

- 李敦柱(1992). 『漢字學總論』 개정판. 서울: 博英社.
 李翊燮(1992). 『國語 表記法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陳章太(1991). 「中國의 漢字 簡體化 問題」. 『새국어생활』 1-4.

- 崔玲愛(1989). 「中國 文字 改革」. 『국어생활』 17.
- _____(1995). 『漢字學講義』. 서울 : 통나무.
- 許成道(1993). 「중국의 국어 정책에 대하여」. 『세계의 언어 정책』. 국어학회.
- 洪仁杓(1994). 『중국의 언어 정책』. 서울 : 고려원.
- 阿辻哲次(1989, 金彦鍾 朴在陽 譯 1994). 『漢字的 역사』. 서울 : 학민사.
- Chao, Y. R.(1968). *Language and Symbolic Sys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ulmas, F.(1989). *The Writing Systems of the World*. Oxford : Blackwell.
- Daniels, P. T. and W. Bright eds. (1996). *The World's Writing 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 De Francis, J.(1989). *Visible Speech : The Diverse Oneness of Writing Systems*. University of Hawaii Press.
- Henderson, L.(1982). *Orthography and Word Recognition in Reading*. New York : Academic Press.
- Keightley, D. A.(1989). "The Origins of Writing in China : Scripts and Cultural Contexts." Senner, W. M. ed. *The Origins of Writing*.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Mair, V. H.(1996). "Modern Chinese Writing." Daniels, P. T. and W. Bright(1996).
- Sampson, G.(1985). *Writing Systems : A Linguistic Introdu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Vachek, J. (1973). *Written Language*. The Hague : Mouton.